

Q3. 다스림의 다른 말은 '책임'이네요! 아이들에게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구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참 특별한 존재네요.

성경이 인간의 독특성에 관해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영원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능에 매여 살지 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생존 본능을 거슬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적 조건에 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닫혀진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인격적 결단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에 대해서와 주변 문화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그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에 기질은 타고날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의지적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이 타고난 급한 성격이나 분노, 음욕, 나쁜 환경으로 변명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자유와 의지적 결단을 통해 만들어진다 고 봐야 합니다.

사람은 흠이지만 죽으면 그만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 속에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인간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자유를 가진 인격으로 지음 받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본능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만 의지로 넘어서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죽음도 무릅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람은 세상 속에 살면서 영원을 내다봅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오의 안경', (이상 NVP) 등이 있다.



누가 그 진리를 죽였는가

정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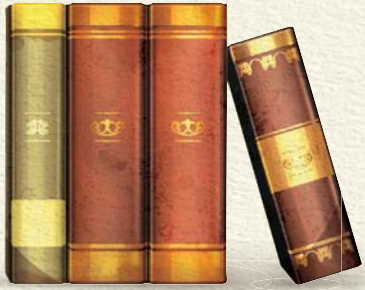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실재(Reality)를 대할 때, 심판관이 아니라 철저히 학생의 자세로 열린 태도를 품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그 진리를 죽였는가』 12쪽.

책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저자인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회심 이후 그의 삶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충성한 산 제자의 삶이었으며, 그의 저술들은 그 열매들이기 때문이다. 뉴비긴은 1909년 영국 뉴캐슬에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 대학 퀸즈 칼리지에 입학할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기독교 학생운동(SCM)에 참여하면서 회심하게 되었고, 케임브리지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936년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 칸치푸람으로 파송되어 11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1959년 국제선교협의회(IMC)의 총무직을 수락하여 잠시 인도를 떠났지만, 1961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뉴델리 회의에서 IMC와 WCC의 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WCC 부총무와 전도위원회 책임자가 되었고, 1965년에는 다시 남인도교회로부터 마드라스의 주교로 임명받아 10년을 더 사역하였다.

1974년, 35년의 인도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뉴비긴은 영국이 선교지보다 더 사역하기 어려운 이교도 사회로 변해버린 현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서구 사회를 선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선교적이며 분석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199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저술 활동과 강연, 목회 사역을 하였다.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영국, 땅끝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이 복음이 스러져가는 오히려 선교가 필요한 땅끝으로 변해버린 현실에 뉴비긴의 마음은 어땠을까? 복음을 전파하고 떠먹이듯 가르쳐 세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바울의 애끓는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 책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고 밝히고자 애쓴 결과물 중 하나이다.

『누가 그 진리를 죽였는가』의 원제목은 『Truth and Authority in Modernity』(1996)이다. 이 책은 2005년에 『포스트모던 시대의 진리』(IVP)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던 것을 2011년에 개정하면서 제목까지 바꾸게 된 것이다. 보다 도전적이고 강한 어조로 제목을 바꾼 이유는 아마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호소에 주목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 같다.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 진리를 죽인 것은 바로 서구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근대성(modernity)’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근대성’이란 근대 이후 유럽 지성계를 지배하게 된 사고방식(그 뿌리는 오래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곧 계시와 전통을 권위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이 책은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며, 그 오류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올바른 성경의 권위를 인지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모더니즘(계몽주의) 탐구방법의 가장 큰 한계는 ‘목적’에 관해 말해주지도, 또 말해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계몽주의 탐구방법은 드러난 현상을 이성을 통해 관찰, 분석하고 인과관계의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만 보면 인간 이성이 자율성을 갖고 마치 진공상태에서 기능하는 엄정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계몽주의 탐구에 사용되는 인간의 이성은 그 자체도 이미 전통과 경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히 자율적인 것이 아니다. 즉 모든 앞에는 앞의 주체가 개입되고, 언어, 상징, 이야기 등으로 구현된 앞의 전통을 전수받은 주체에게만 가능하다. 마이클 풀라니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모든 앞에 내포된 암묵적 요소이다(p.50). 나아가 모더니즘 탐구방법에 의해서는 어떤 사건이나 존재의 ‘목적’에 관해서 결코 알 수 없다. 목적은 그것을 부여한 존재가 계시할 때만 드러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목적에 관해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모더니즘은 ‘인간의 자유’ 내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미명하에 이것을 거부한다.

예를 들어, 진화론에서 생명의 탄생은 알 수 없는(아직 규명되지 않은) 기체에 의한 ‘우연’으로 설명된다. 생명의 존재 이유 혹은 목적은 관심 밖의 대상이다. ‘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삶의 목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가장 최선의 이론이 내놓는 대답은 다음과 같다. 풀벌이나 개미의 생태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의 이익/생존을 위해 이기적인 개인이 이타적인(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는 식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려면 최소한 이런 전제가 참이어야 한다. “풀벌과 개미와 인간은 동일한 존재이다.” 이 전제가 참이 아니라면 그 후에 주장되는 모든 진술들은 잘못 추론된 것일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셋은 동일한 존재인가? (사실 풀벌과 개미와 인간은 여러 가지 유사한 점들이 있겠지만, 그것의 수준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전혀 서로 다른 존재들이다.) 이것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

겠지만, 그 모두가 참인 것은 아니다! 진화론에서 하는 다른 설명들도 하나의 추론일 뿐 ‘진리’는 아니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모더니즘의 한계를 간파했지만, 해답을 다시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언명에서 알 수 있듯 ‘진리’를 포기·해제한 것이다(이런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모더니즘의 확장 내지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더 이상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이것은 결국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로 귀결되고, 나아가 지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며, 지성의 쇠퇴를 초래하게 되었다. 서두에 적은 말에 비추어 보면 자신보다 더 큰 실재를 대하면서 학생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된 격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면 진리가 아닌 지식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지식은 정치·경제·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그것의 참·거짓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주의/다원주의로 귀결되게 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결국 참과 거짓의 문제를 상 황논리,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게 만들며, 좋음과 나쁨의 선택의 문제로 바꾸어 버린다.

오늘날 핫이슈 중 하나인 동성결혼의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동성결혼은 진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즉, 개인마다 다른 취향의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3개국,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조차도 13개주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종교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종교는 진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게 평안을 주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공적 영역에서 논의해서는 안 되는, 사적 영역의 문제로 제한되고 있다. 과연 종교는 사적 선택의 문제에 불과한가?

오늘날 우리는 위와 같은 세계관이 편만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태초에 천지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여 년 전 친히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사렛 사람 예수로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여 전파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믿어야 할 바이며, 나아가 후대에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천지창조’ 사건은 이 세계(자연)에 관한 ‘사실’의 문제이고,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역사적 ‘사실’의 문제이다. 사실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며,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닌, 즉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



라는 것이다(이것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뉴비긴의 다른 책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를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뉴비긴에 의하면, 성경의 '권위'는 근대적인 의미의 그것과는 다르다. 성경의 권위는 실증적 증거나 객관적 관찰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출 때 행사된다.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고 전통에의 참여.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교회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부분이 바로 전통에의 참여이다. 이것은 (교회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이어지는 토론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진리에 이르기 위해, 자신이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잠정적인 것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애써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장 적극적인 듣기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대학에서 학생들과 수업 중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오히려 철학을 공부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애써 논리적 탐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이 학생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성의 중지'와 같다고 생각되었던 모양이다. 그러자 다른 한 학생이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교회학교의 문제입니다."라고. 아마도 이 학생은 그동안 받아왔던 교회교육이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으로 느껴졌던 모양이다. 전자의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이 한 말이었고, 후자의 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학생의 말이었다. 작은 사례이겠지만, 전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이고, 후자는 현재 하나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상태일지 모른다. 양자 모두가 가슴 아픈 상태임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법이나 내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진지한 지성의 훈련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J. P. 모어랜드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지성」이라는 책에서 신학자 칼 헨리는 이렇게 말했다. "지적 훈련은 가정, 교회, 학교가 감당할 중요한 책임이다. 복음주의자가 젊은이에게 지성적인 면을 자극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심지어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믿음과 지성은 전혀 상반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며(사 11:9),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엡 4:13).

끝으로, 이를 위해 한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하고 싶다. 각 교회 주보에 매주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좋은 책을 1권 씩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면 어떨까? 이 일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교회공동체와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전통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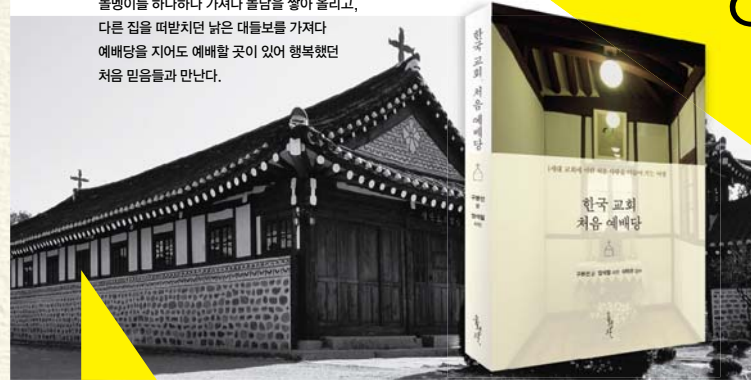
정문선 현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은 준비 중이다. 관심주제는 자유교육, 종교교육, 기독교 세계관, 가정세우기 등이며 특히 다원주의·상대주의 사회에서 종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경인교육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사·교육철학>, <교육사상사 연구> 등을 가르쳤으며, 현재는 서울교육대학교 독학사 칼리지에서 <교육학개론>을 가르치고 있다.

1세대 교회에 서린 처음 사랑을 더듬어 가는 여정

백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교회는 많지만, 여든 넘는 예배당을 지켜 온 곳은 고작 스무 곳 남짓.

크고 웅장한 새 성전 건축에 열을 올리는 사이, 오래 두고 보면서 되새기며 지켜야 할 첫 모습을 알고 싶은 아닐까?

돌맹이를 하나하나 가져다 돌담을 쌓아 올리고, 다른 집을 떠받치던 낮은 대들보를 가져다 예배당을 지어도 예배할 곳이 있어 행복했던 처음 믿음들과 만나다.



한국 교회 처음 예배당

구본선 글
장석철 사진
이덕주 감수
A5 변형 / 전면컬러
296면 / 17,000원

구약의 기록들이 노래하는 다윗 일대기

다윗 실록



이스라엘의 성군이자 믿음의 영웅이기 이전에 너무나 인간적인 다윗!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사편에 흩어져 있는 다윗에 관한 내용들을 시간순으로 엮어, 다윗의 일생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생생히 보여 준다.

〈다윗 실록〉은 우리의 지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우리의 심령을 경건으로 불붙인다. -송인규 교수

다윗의 역사를 그의 슬픔과 탄식, 고뇌와 참회, 믿음과 소망, 감사와 기쁨의 빛 아래서 읽을 수 있게 한다. -김진수 교수

고영길 역음 | 믿음의 글들 313 | 312면 | 13,000원

BIBLE IN TIMES 시리즈는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인물인 예수, 바울, 다윗에 관한 성경 기록을 시간 순서에 따라 엮은 것으로, 단순한 시간적 나열을 넘어 역사적·신학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견해에 따라 각 구절을 유기적으로 종합했습니다.

BIBLE IN TIMES 1
예수 전기

시간순으로 통시어 읽는 사복음서
고영길 역음 | 믿음의 글들 252 | 352면

BIBLE IN TIMES 2
바울 행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으로 그린 사도 바울
고영길 역음 | 믿음의 글들 284 | 392면

T. 833-5161 http://www.hsbooks.com
호서사.